

경남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와 지원 방안¹⁾

01.

경남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조사

02.

경남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조사 결과

03.

경남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방안

-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대리양육을 받는 아동 중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를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이라 칭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등을 근거로 자립을 지원해야 함
-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만 18세인 청년을 아동이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고, '보호'라는 수동적 의미 대신 능동적 의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1년 발표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됨
현재는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 과도기 과정에 있으며 향후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0년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은 2,368명으로 경기 388명(16.4%), 서울 276명(11.7%), 전남 273명(11.5%), 경남 194명(8.2%) 순으로 많음
- 2020년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12,399명 중 2,859명(23.1%)이 연락 두절이나, 경남은 957명 중 347명(36.3%)이 연락 두절로 나타나 경남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됨
- 중앙정부는 멘토링,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립생활관, 금융교육,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사업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자립은 여전히 매우 힘든 상황임. 경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 파악을 통해 자립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립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01. 경남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조사

■ 조사 개요

- 경남 지역 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자립지원 정책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기간: 2022년 07월 22일 ~ 2022년 09월 02일
- 조사방법: 구조화된 웹 설문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경남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 총 164명

■ 조사 항목

-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일자리 및 경제, 자립준비 정도 및 심리적 상태, 자립지원 정책 등

1) 본 내용은 2022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남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재구성함

02. 경남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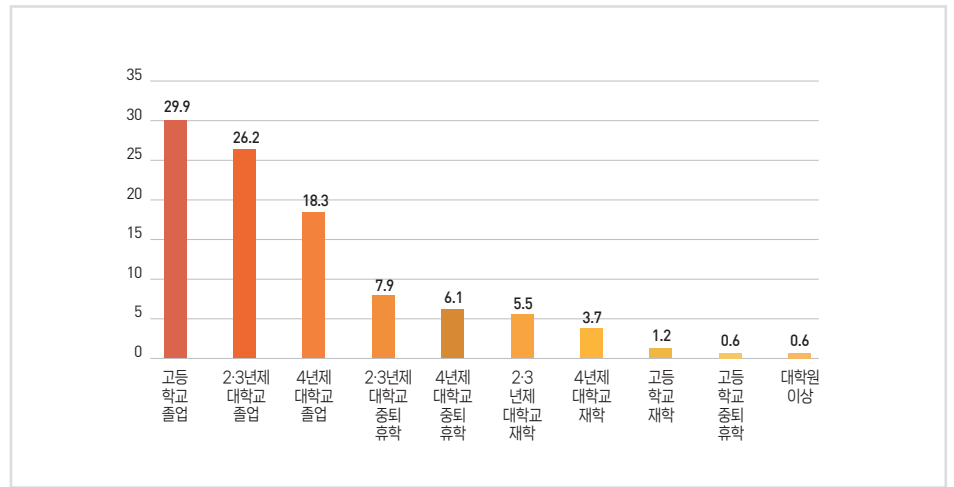
1) 교육

■ 학력 및 진로 계획

- 전체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29.9%), 2·3년제 대학교 졸업(26.2%), 4년제 대학교 졸업(18.3%), 2·3년제 대학교 중퇴/휴학(7.9%), 4년제 대학교 중퇴/휴학(6.1%), 2·3년제 대학교 재학(5.5%), 4년제 대학교 재학(3.7%), 고등학교 재학(1.2%), 고등학교 중퇴/휴학(0.6%), 대학원 이상(0.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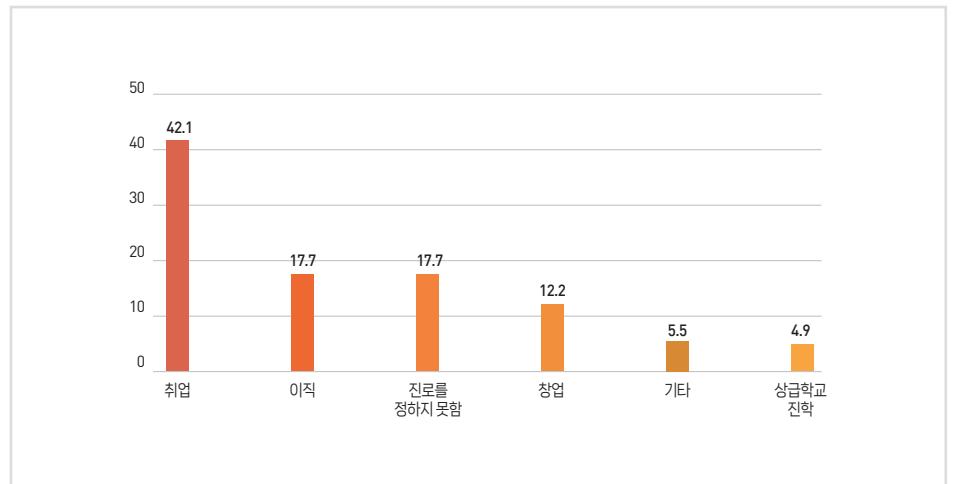
(단위: %)

그림1 학력



(단위: %)

그림2 향후 진로 계획



- 자립준비청년들의 향후 진로 계획은 취업(42.1%)이 가장 많음. 다음으로 이직(17.7%), 창업(12.2%), 기타(5.5%), 상급학교 진학(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경우도 17.7%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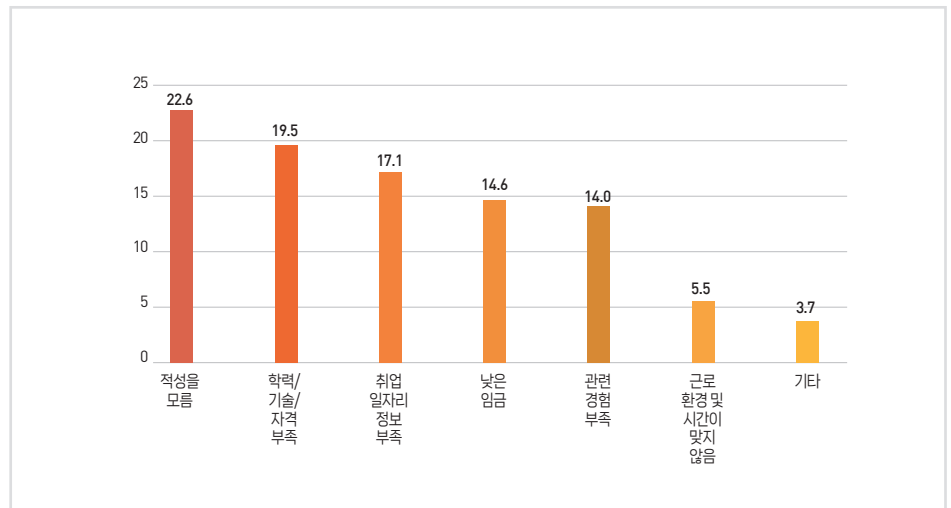
2) 일자리 및 경제

■ 취업

- 취업 시 본인의 적성을 알지 못해(22.6%)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학력 및 기술/자격 부족(19.5%), 취업/일자리 정보 부족(17.1%), 낮은 임금(14.6%), 직종 관련 경험 부족(14.0%), 근로환경 및 시간이 맞지 않음(5.5%), 기타(3.7%)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함
-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취업 지원 형태는 취업장려금 지원(44.5%)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그 외 연수체험(21.3%), 직업훈련(10.4%), 해외 취업 및 해외 인턴(9.1%),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7.9%), 단기 일자리 제공(6.7%)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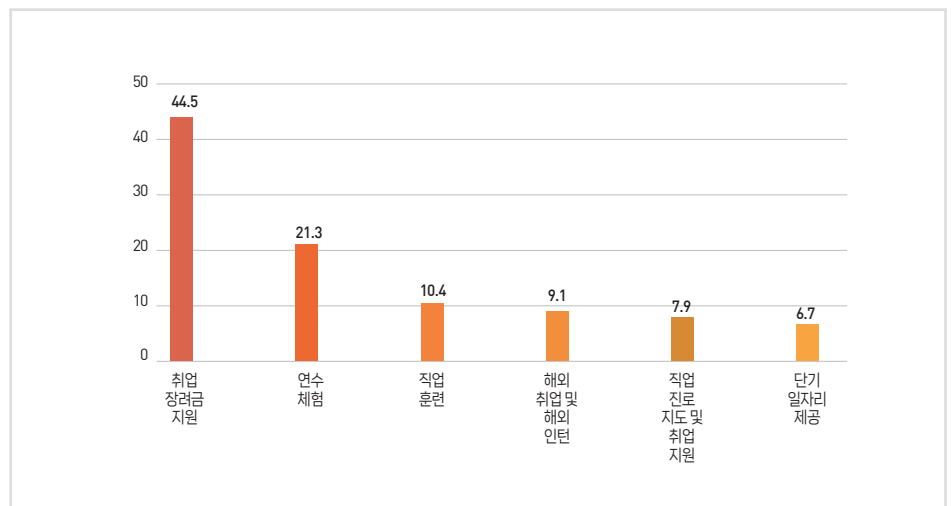
(단위: %)

그림3 취업 시 어려운 점



(단위: %)

그림4 필요한 취업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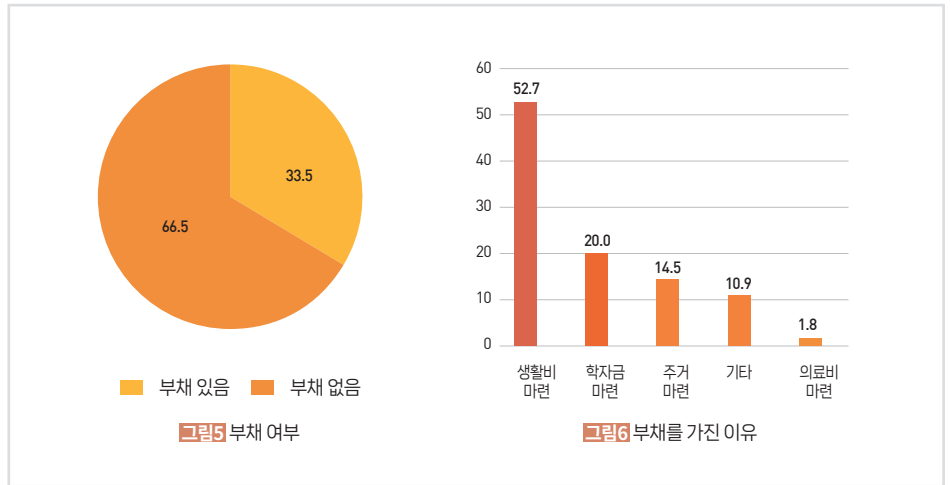
■ 부채

-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현재 부채가 있는 경우는 33.5%(55명)로 부채가 없는 경우(66.5%)가 더 많음
- 현재 부채가 있는 55명을 대상으로 부채를 지게 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생활비 마련이 52.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다음으로 학자금 마련(20.0%), 주거 마련(14.5%), 기타(10.9%), 의료비 마련(1.8%)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5 부채 여부

그림6 부채를 가진 이유



3)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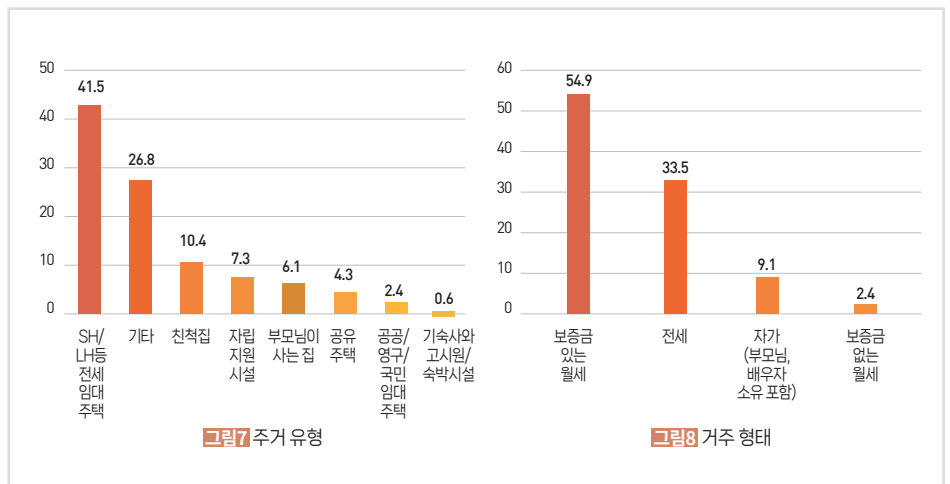
■ 주거 유형 및 형태

- 자립준비청년의 현재 주거유형은 SH/LH 등 전세임대주택 41.5%, 기타 26.8%, 친척 집 10.4%, 자립지원시설 7.3%, 부모님이 사는 집 6.1%, 공유주택 4.3%, 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 2.4%, 기숙사와 고시원/숙박시설 각각 0.6%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 54.9%, 전세 33.5%, 자가 9.1%, 보증금 없는 월세 2.4%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7 주거 유형

그림8 거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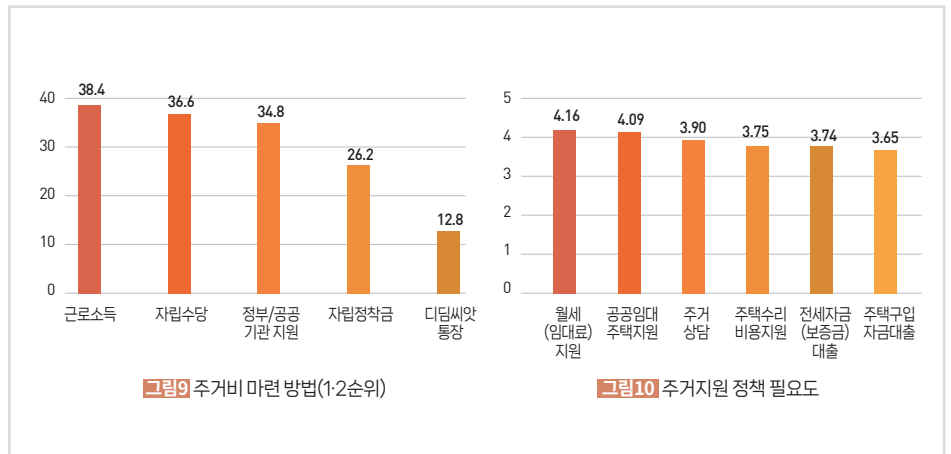
■ 주거비 마련 및 필요 정책

- 주거비를 마련한 방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38.4%)으로 나타남. 근로소득 외에 주거비 마련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은 자립수당(36.6%), 정부/공공기관 지원(34.8%), 자립정착금(26.2%), 디딤씨앗통장(12.8%) 순으로 나타나 자립준비청년들은 본인의 소득 외에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5점 만점에 월세(임대료) 지원(4.16점), 공공 임대주택 지원(4.09점), 주거상담(3.90점), 주택 수리비용 지원(3.75점), 전세자금(보증금) 대출(3.74점), 주택 구입자금 대출(3.65점)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점)

그림9 주거비 마련 방법(1·2순위)

그림10 주거지원 정책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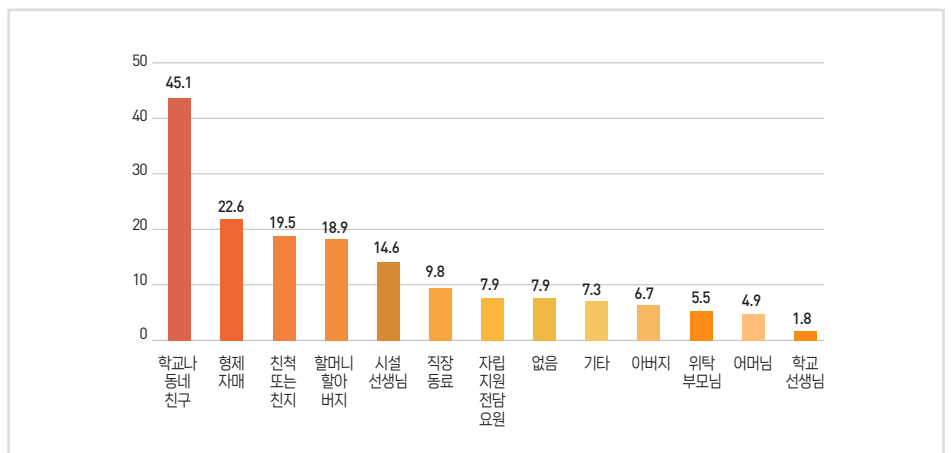
4) 사회적관계

■ 도움 요청

-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1·2순위를 질문한 결과, 학교나 동네친구 45.1%, 형제/자매 22.6%, 친척/친지 19.5%, 할머니/할아버지 18.9%, 시설 선생님 14.6%, 직장동료 9.8%, 자립지원 전담요원 7.9%, 기타 7.3%, 아버지 6.7%, 위탁 부모님 5.5%, 어머니 4.9%, 학교 선생님 1.8% 순으로 나타남.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응답은 7.9%로 확인됨

(단위: %)

그림11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1·2순위)



5) 자립준비 정도 및

심리적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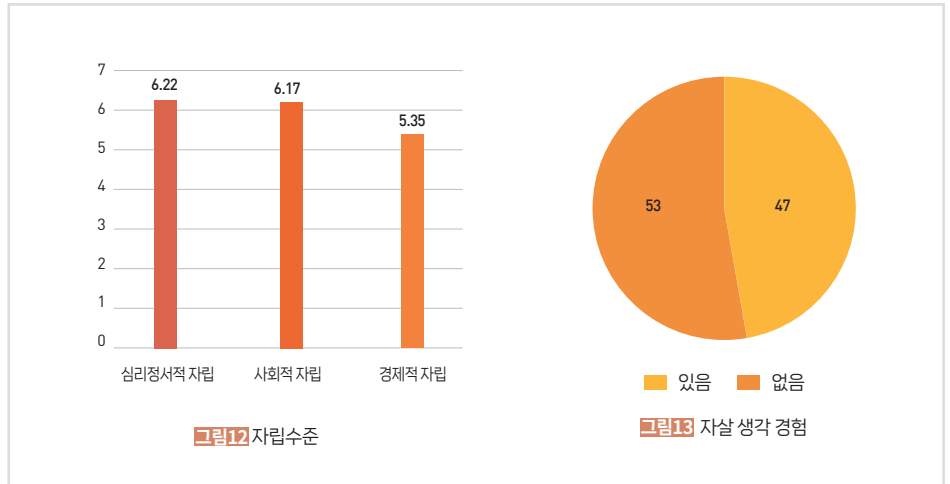
■ 자립수준

- 자립준비청년은 현재 자신의 자립수준을 중간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심리·정서적 자립(6.22점), 사회적 자립(6.17점)의 경우 6점대 이상으로 비교적 자립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적 자립(5.35점)은 상대적으로 자립수준이 낮음
- 전체 응답자 중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죽고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77명(47.0%)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87명(53.0%)으로 나타남

(단위: 점, %)

그림12 자립수준

그림13 자살 생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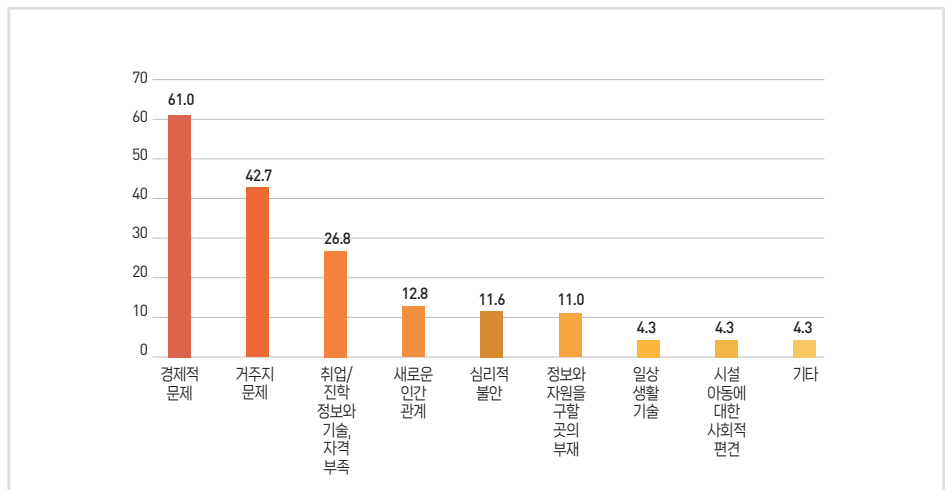
6) 자립지원 정책

■ 보호종료 후 어려움

-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문제(61.0%)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거주지 문제(42.7%), 취업 및 진학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자격 부족(26.8%), 새로운 인간관계(12.8%), 심리적 불안(11.6%),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구할 곳의 부재(11.0%), 일상생활 기술,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기타가 각각 4.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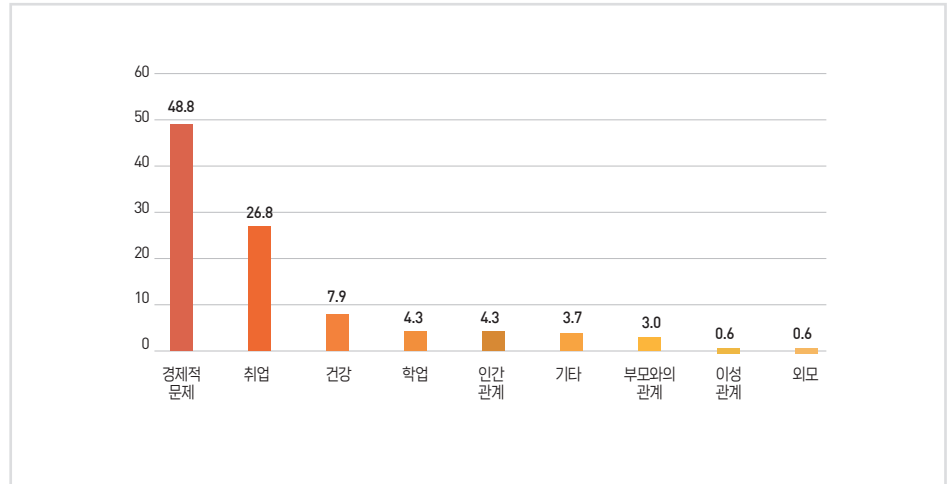
(단위: %)

그림14 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 (1-2순위)



(단위: %)

그림15 현재 고민(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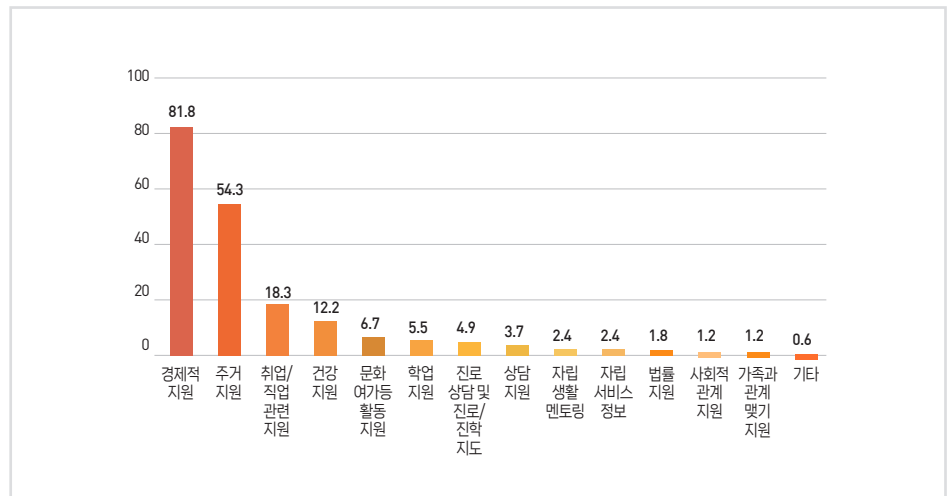
- 자립준비청년들은 현재 경제문제(48.8%), 취업(26.8%)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건강(7.9%), 학업(4.3%), 인간관계(4.3%), 기타(3.7%), 부모와의 관계(3.0%), 이성관계(0.6%), 외모(0.6%) 순으로 나타남

■ 자립정책

- 보호종료 후 필요한 자립지원 1·2순위로 자립준비청년들은 경제적 지원(81.1%)과 주거지원(54.3%)을 가장 많이 선택함. 다음으로 취업/직업관련 지원(18.3%), 건강지원(12.2%), 문화여가 등 활동지원(6.7%), 학업지원(5.5%),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지도(4.9%), 상담지원(3.7%), 선배에게 자립생활 멘토링(2.4%), 자립 서비스에 대한 정보(2.4%), 법률지원(1.8%), 사회적 관계 지원(1.2%), 퇴소 후 지지해줄 가족과 관계맺기 지원(1.2%), 기타(0.6%) 순으로 선호함

(단위: %)

그림16 필요한 자립지원 정책 (1·2순위)



03. 경남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방안

■ 교육 및 취업

- 자립준비청년 대다수는 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자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시 적성을 몰라 힘들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력 및 자격 부족이 높게 나타남
 - 희망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자격증, 대외활동,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취업 과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컨설팅해 줄 수 있는 1:1 취업 코칭 프로그램이 필요함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경남자립지원전담기관과 도내 고용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고용관련 기관 내부에 자립준비청년 취업 전담자를 지정·배치 및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경제

- 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중 33.5%는 현재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른 시기에 부채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경제적 문제로 나타남
 - 자립준비청년 중 이미 부채가 있거나, 개인회생이 필요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들과 달리 부채 내용이 학자금대출과 같은 교육비에 국한되어 있다기 보다 여러 원인들에 의해 부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비 채무에 국한되지 않은 채무 지원 사업이 필요함

■ 주거

- 자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지원 주거 공간보다 월세에 거주 중인 경우가 더 많고, 월세 형태의 주거형태는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 중인 주거형태로 확인됨. 또한 자립 수당이나 자립정착금과 같은 자립 자금을 이용해 주거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 또한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 중 월세(임대료)지원 사업이 가장 요구되는 정책으로 확인됨
 - 현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월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연 사업 수혜 대상자가 매우 적어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심리정서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당시 자립 선배들과의 교류가 없었던 점이 아쉬웠던 것으로 나타남. 현재 기존의 멘토/멘티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확장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인이 된 연장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당시 자립 선배들과의 교류가 있었다면 진로의 선택이 더 다양하고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더 높았을 것이라고 인식함
 - 자립을 앞둔 보호아동과 자립한 자립준비청년 간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들 간 정보 교환과 심리 정서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